

카프의 매체 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동요집 『불별』

이 순 욱*

차 례

- | | |
|--------------------------|-----------------|
| I. 들머리 | 2. 곡보의 대중성과 선동성 |
| II. 카프의 문예운동과 『불별』 | 3. 그림의 사실성과 선전성 |
| III. 『불별』의 매체적 성격과 실천 방향 | IV. 마무리 |
| 1. 노랫말의 계급성과 투쟁성 | |

I. 들머리

이즈음 경남·부산 지역문학에 대한 논의가 한결 깊어지고 있다. 특히 계급주의 문학과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은 지역 차원의 문학활동에서 나아가 근대문학사의 지평을 한껏 넓히고 있다.¹⁾ 기존의 문학사 기술에서 변두리로 내몰려

* 한국해양대학교 강사

1) 대표적인 논의로 박태일과 박경수의 글을 들 수 있다. 박태일, 『이주홍의 초기 아동문학과 '신소년'』, 『현대문학이론연구』~1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2; 『경남 지역 계급주의 시문학 연구』, 『어문학』~80집, 한국어문학회, 2003.6; 『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1(청동거울, 2004). 박경수, 『계급주의 동시 이해의 밑거름-프롤레타리아동요집 『불별』에 대하여』, 『지역문학연구』~8집,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3; 『잊혀진 시인, 김병호(金炳昊)의 시 세계』, 『한국시학연구』~제9호, 한국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아동문학의 영역은 형성기 경남·부산 지역문학의 성격과 실제, 지역문단의 형성과정, 문인들의 이념적 성향, 서울지역 중심 문단과의 영향관계를 살필 수 있어 여전히 섬세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최근 잇따른 자료 발굴에다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작가·작품론은 1920~30년대 이 지역 문학활동의 현황과 지역적 연대, 개별 작가들의 문학적 특성과 장르 선택의 논리를 고찰함으로써 지역문학에 대한 이해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근대 아동문학에 대한 연구가 의외로 부족한 까닭은 자료 부족에 연유하는 바 크다. 아동문학 관련 단행 자료뿐만 아니라 연속간행 매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보면 아동문학에 대한 폄하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을 규정짓는 잣대의 편향성에다 계급주의에 대한 이념적 거리, 명망주의와 대중주의에 기대 문학 연구 풍토가 암묵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하겠다.

이 논문은 프롤레타리아 동요집인 『불별』을 대상으로 문학의 실천성을 강조했던 카프의 매체 투쟁 논리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발간된 동요집 『불별』의 매체적 성격과 실천 방향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경남·부산 지역 문학인들의 문학적 위상을 점검할 수 있으며, 『불별』의 발간이 근대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사 나아가 근대 계급주의문학 운동사에서 갖는 문학사적 의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II. 카프의 문예운동과 『불별』

계급주의 예술운동은 조직을 통한 실천운동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까닭에

학회, 2003; 『김병호의 동시와 동시비평 연구』, 『국제어문』29집, 국제어문학회, 2003;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동시 연구』, 『한국문학논총』35집, 한국문화회, 2003;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시 연구』, 『우리말글』29집, 우리말글학회, 2003; 『잊혀진 시인, 김병호의 시와 시세계』(새미, 2004). 이외에 류종렬, 『이주홍과 근대문학』(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류종렬 편저, 『이주홍의 일제강점기 문학 연구』(국학자료원, 2004)도 이즈음 경남 지역문학의 연구 경향과 성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저작이다.

운동의 실천적 기반으로 매체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매체는 조직의 이념적 지향성과 조직 구성원들의 결속과 연대의식을 드러내고, 독자대중과의 연대를 확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계급주의 예술운동이 실천형식인 매체를 통해 이념적 선명성과 운동성을 강조했다면, 매체 활용은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카프 또한 연속간행물을 발행하여 사상적 논전을 이끌어 내거나 단행본 매체의 발간을 통해 계급주의 이념을 폭넓게 확장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특히 산하별 조직을 재정비한 2차 방향전환 이후에는 시각매체의 활용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다. 각지에서 소작쟁의와 파업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1930년대 카프 미술부가 보여준 활동은 매체의 효용성을 잘 드러낸다. 카프미술부는 파업 현장에 미술가들을 파견하여 빠라나 선전 포스터, 만화들의 시각매체를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을 이끌기도 했다. 또한 출판물에서도 카프 기관지와 카프의 영향 관계에 있었던 진보적 월간 잡지, 카프 작가들의 단행본 표지의 장정과 삽화를 그릴 때도 선전성과 전투성을 드러내고자 했다.²⁾ 방향전환에 따라 부문별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미술부원들이 연극 무대미술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시각매체의 선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셈이다.

연속간행물 매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잡지의 발행이다. 우선적으로 기관지의 발행을 들 수 있다. 카프는 1926년 준기관지인 『문예운동』과 기관지 『예술운동』을 간행함으로써 체제 정비와 조직 개편을 발빠르게 추구하였다. 물론 카프 자체의 내부 요구에 따라 기관지를 발간했지만, 매체 발간은 당대 사회운동론의 방향 전환과 같은 맥락에서 다분히 이론 전개와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특히 헤게모니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론 투쟁은 방향 전환을 부추기는 분기점으로 작용했다. 1929년 들어 조선프로예맹 동경지부와 경성본부 간 분열이 두드러졌던 시기에 카프 최초의 기관지였던 『예술운동』(1927년 11월 창간, 통권 2호로 중단)의 발간 중단과 동경지부 주도의 잡지 『무산자』(1929.3) 발간은 이론투쟁에서 결합과 분리의 양상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라 할 만하다. 그만큼 기관지는 매체 투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2) 이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불별』에 삽화를 그렸던 이주홍, 정하보, 강호, 이갑기 들이다. 강호, 『카프 미술부의 조직과 활동』, 『조선미술』 5호(조선미술사, 1957), 10~11쪽.

실제로 권환은 『예술운동』의 간행 중단 이후에 대중적 아지프로 잡지와는 다른 노동자 농민 계급이 아닌 예술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기관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소박한 양식이더라도 잡지 매체를 끊임없이 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 기관지는 노농 대중을 겨냥한 대중적 잡지와는 다른 자리에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지는 대체로 카프 내부의 기관원이나 당대 지식인들을 독자층으로 겨냥한 까닭에 조직의 강령이나 이념, 조직노선을 표방하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결속력과 이념적 기반을 강화하고, 카프의 조직원을 확보하려는 성격이 두드러지는 간행물이라고 할 수 있다.

카프의 기관지는 아니지만 계급주의를 선명하게 표방했던 잡지로는 『신소년』과 『별나라』가 대표적이다.⁴⁾ 공식 기관지와는 달리 이들 잡지 매체는 일반 독자층, 주로 소년층을 향하고 있어 계급주의 이념을 내면화시키고 계급문단을 형성하는 촉매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이들 잡지 매체에서 두루 소개하고 있는 바, 서울의 조선청년동맹이나 조선공산당 하부 조직 활동으로서 지역 안쪽에 마련된 청년동맹, 소년동맹, 독서회 활동들이 지역 계급주의 세포 확산과 계급문학관을 뿌리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⁵⁾ 아울러 『시대일보』, 『동아일보』, 『중외일보』와 같은 신문 매체 또한 유·무명 문사지망생들의 습작활동을 지원하며 신인 등용문의 역할을 충

3) 권환, 『朝鮮藝術運動의 當面한 具體的 過程』, 『중외일보』 1930.9.7.

4) 카프가 독립적인 아동분과를 두지 않았던 까닭에 이들 매체를 카프의 기관지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카프의 활동이 비합법적이어서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카프 지도부는 이들 아동매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이는 카프 미술부가 주도한 <전국 무산아동 작품 전람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제 경찰의 눈을 가리우기 위하여 카프 미술부가 표면에 나선 것이 아니라 송영, 박세영 두 동무가 직접 지도하고 있던 소년잡지 『별나라』를 주취자로 내세우고 『별나라』가 지고 있던 광범한 지사망을 통하여 전국 각지의 아동 작품을 현상으로 모집했다. 수천점의 응모 작품 중에서 우수한 천이점은 『경성일보사』 2층에 전시하였다. …(출 입)… 여기에는 새로 자라는 미래의 주인공들을 혁명 의식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앞날의 혁명 투사로 육성하기 위한 카프 아동 문학가들의 의식적 노력과 『별나라』의 삽화, 만화 등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계급적 교양에 진지하게 노력한 카프 미술가들의 영향력이 적지 않게 작용했던 것이다.” 강호, 앞의 글, 12쪽.

5) 박태일, 『경남지역 계급주의 시문학 연구』, 『어문학』 80집, 한국어문학회, 2003.6, 294쪽.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아동잡지 매체에서 문학적 기반을 쌓은 김병호, 이주홍, 이구월, 손풍산, 신고송, 엄홍섭 등이 아동문단을 두텁게 형성하다가 이념 투쟁이 치열했던 1930년대 들어 카프의 전면에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며 프롤레타리아 동요집 『불별』을 내놓은 일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1929년 이후 계급주의적 색채를 두드러지게 표출했던 『신소년』과 『별나라』가 계급주의 아동문학인의 성장을 복돋은 잡지매체로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까닭이라 하겠다.

종합 문예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音樂과詩』(1930.8)다. 창간호로 끝난 이 잡지는 경남의 계급주의 시인들이 활발하게 계급문단 중심에 편입되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매체이다.⁶⁾ 훗날 『불별』에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주홍, 엄홍섭, 김병호, 손풍산, 양우정, 신고송, 이구월 등이 글을 실고 있어 주목된다. 곡보와 함께 수록한 동요 네 편⁷⁾ 가운데 양우정의 「알롱아·달롱아」를 제외하고는 「편싸흠노리」(이주홍), 「거머리」(손풍산), 「새훗는노래」⁸⁾(이구월)는 『불별』에 재수록되었다. ‘음악운동’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이 매체가 『불별』과 같은 맥락에 놓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단행본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카프詩人集』과 『불별』, 『農民小說集』⁹⁾을 들 수 있다. 1931년 11월에 간행한 『카프詩人集』(집단사)은 ‘조선프로레타리아 예술동맹문학부’에서 엮은 단행본으로 김창술, 권환, 임화, 박세영, 안막의 시를 싣고 있다.¹⁰⁾ 이들 가운데 권환, 안막, 임화 등의 소장파 문인들은 조선공산당의 재건 운동을 계획하면서 카프의 조직을 장악하고 조직 재편을 추구했던 소장파들이다.¹¹⁾ 실제로 이들은 예술운동의 실천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 조직에

6) 박태일, 앞의 논문, 301쪽.

7) 『音樂과詩』 창간호(음악과시사, 1930), 2~5쪽.

8) 『불별』에 수록할 때는 「새훗는노래」로 제목을 바꾸었다.

9) 1933년 10월 별나라사에서 발행한 『農民小說集』은 카프의 논객이었던 세 사람의 소설 5편을 싣고 있다. 수록작품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洪水」, 「賦力」(이기영), 「木花와 콩」(권환), 「群衆停留」, 「午前九時」(송영).

10) 김창술이 「汽車는 北으로 北으로」의 3편을, 권환이 「가라거든 가거라」의 6편을, 임화가 「우리 읍바와 火爐」의 6편을, 박세영이 「누나」 1편을, 안막이 「三萬의 형제들」의 1편을 실었다.

11) 아직 조직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권환과 안막은 조선프로예맹 동경지부가 경성본부와 분리된 독자적인 조직으로서 합법적인 출판사인 무산자

가담하여 조직 재편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고 기사¹²⁾를 보면, 김창술을 제외하고는 『農民小說集』과 『카프詩人集』에 참여했던 문인들이 모두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까닭에 이들이 이미 조직을 장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프의 세대 교체가 표면화되었던 셈이다. 따라서 이들 단행본 매체는 끝내 현실화되지 못한 조직 재편과 1차 검거사건으로 이어진 1931년 이후 소장파들이 동맹 내의 계급적 입지와 전위의 관점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구체적 산물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보다 앞서 간행된 『불벌』(신소년사, 1931.3.5)은 『農民小說集』이나 『카프詩人集』과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겉표지에 ‘푸르레타리아童謡集’이라 명기했듯이 변방의 아동문학인들이 문예운동에서 아동문학의 역할론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소장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에서 나온 간행물이라 하겠다. 이것은 권환과 윤기정이 나란히 서문을 올리고¹³⁾, 조직 재편 예고¹⁴⁾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선된 엄홍섭과

사를 설립할 때 가세한 인물로 여겨진다. 권영민, 『한국 계급문학 운동사』(문예출판사, 1998), 200~206쪽.

12)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조직(1930.4.26)』, 『조선일보』 1930.4.29.

13) 박경수는 서문의 필진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이 동요집이 당시 카프의 핵심부로부터 지지 내지 후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은근히 내세우는 셈이 되고, 아울러 이 동요집의 시인들이 카프의 일원이거나 카프에 동조적인 인물들로서 카프의 문학이념을 지지 내지 동조하는 차원에서 이 동요집을 간행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박경수, 『계급주의 동시 이해의 밑거름-프로레타리아 동요집 『불벌』에 대하여』, 『지역문학연구』 제8호(경남·부산지역문화회, 2003), 205쪽.

『불벌』의 필진이 대부분 카프의 기관원이지만, 김병호나 이구월, 이일권은 카프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아직 발견할 수 없다. 당시 교사로 일했던 까닭에 계급주의 문학단체에 쉽게 이름을 올릴 수 없었던 사정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김병호와 이구월은 『新少年』이나 『별나라』에 필자로서 자주 얼굴을 내밀고 있고, 또 카프 지도부가 이들 아동 매체를 표면에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불벌』을 “카프의 문학이념을 지지 내지 동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카프의 매체 투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동요집이 발간되는 것이 우연한일이아니”며, “푸로동요가 성장되었다는 표상”이자 “여러동무의 의식적활동인 동시에 문화전선에 잇서 한부분의 계급적사업”이라 한 윤기정의 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윤기정, 『序文 [二]』, 『불벌』, 3쪽.

14) 『조선일보』 1930년 4월 29일 기사.

중앙위원회 서기국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박세영이 『불별』의 주요한 필진이라는 사실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카프 내부 조직체계에서 아동 문학 분과를 따로 두지 않았고, 또한 현재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밝힌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별』은 카프의 아동 기관지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불별』은 계급문학운동사에서 예술운동의 불세비키화와 카프의 조직 재편 욕구와 맞물려 있는 카프의 아동 매체라 하겠다.

『불별』은 당대의 명망가이자 문화자본가 신명균이 1931년 3월 10일 자신이 경영하던 중앙인서관에서 발행한 동요집이다.¹⁵⁾ 신명균이 『불별』의 발간을 후원한 데에는 몇 가지 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1928년 진주지역에서 간행된 동인지 『新詩壇』¹⁶⁾을 발행했을 만큼 낮은 지 않은 매체 발간 경험과 경남지역에 대한 연고를 들 수 있겠다. 이 동인지에 참여한 김병호, 엄홍섭, 이구월¹⁷⁾은 『불별』의 주요 필진이기도 하다. 동인 가운데 민병휘는 훗날 양우정과 함께 카프 쇄신을 주장하며 끝내 카프에서 제명되는 결과를 초래한 『群旗』자건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그만큼 『新詩壇』은 개성, 인천, 통영, 남해 지역 출신을 망라하고 있어 단순한 지역 동호인지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출판계에 널리 알려진 신명균을 후견인으로 삼아 전국 단위의 필진을 포진시킨 데서 이 동인지의 수평적인 지역연대의식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1923년부터 『新少年』에 작품을 투고하면서 맺게 된 신명균과 이주홍의 인간적 관계를 찾을 수 있다. 이주홍은 1929년 봄에 일본생활을 청산하고

15) 박경수가 『불별』을 학계에 처음 소개하고 성격을 규명하였다. 『불별』의 서지와 판형, 편집체제, 필진의 면모와 노랫말의 성격에 대해서는 박경수, 『계급주의 동시 이해의 밑거름-프롤레타리아 동요집 『불별』에 대하여』, 앞의 책, 201~232쪽. 이 책의 235~280쪽에 걸쳐 『불별』의 전문을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그러나 1)노랫말을 쓴 8명의 시인들을 중심으로 노랫말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치중함으로써 매체의 전반적인 성격을 규명하지 못했고, 2)표제에 분명히 동요집이라 표기되어 있는데도 동요를 포함한 개념의 ‘동시’로 보아 노래운동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으며, 3)노랫말과 곡보, 그림을 그린 필진들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매체 발간의 의의를 뚜렷하게 부각시키지 못했다.

16) 『新詩壇』에 대해서는 강희근, 『『新詩壇』 연구』, 『우리 詩文學 研究』(예지각, 1985), 207~223쪽을 참고할 것.

17) 시가에 김병호(『殺生』)와 엄홍섭(『山千里물千里』), 동요에 이구월(『참깨고리』)이 각각 1편씩을 실었다.

서울로 올라가 『新少年』 편집기자로 일하게 된다. 『불별』에 함께 시를 싣고 있는 박세영이 신명균에게 이주홍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명균(1918년 졸업)은 박세영의 배재고보 4년 선배이다. 또한 박세영은 엄홍섭과 함께 『별나라』를 내면서 향파와는 이미 교분을 쌓아왔던 경험이 있다.¹⁸⁾ 이러한 배재고보의 학연고리와 『신소년』과 『별나라』로 대표되는 공통적인 매체 편집 경험인 박세영과 엄홍섭, 이주홍을 묶는 고리로 작용했을 것이다.

신명균의 이러한 후원과 인적 교분에 힘입어 이미 기성문인의 자격으로 계급주의 예술운동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경남·부산 지역 문학인들이 아동문학쪽으로 실천 방향을 초점화한 것이 바로 『불별』의 발간이다.

이제 우리들의 동요작가들의 손으로 동요집이 발간되는것이 우연한일이 아니다. 그만치 푸로동요가 성장되었다는 표상이며 또한 여러동무의 의식적 활동인 동시에 문화전선에 잇서 한부분의 계급적사업이다.¹⁹⁾

너의들은 이책을 뜻있게 보아다고. 모르는 것이 잇스면 엽혜동무한테서라도 무려서 기어코 알고 읽어다고. 그러면 너의들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책을 만드렷을까 하는것을 깨달으리라. 그러치 그래서 너의들이 어떤 처지에 잇고 어떤길로 나아가야 할 것을 아려야된다. 또 우리는 이다음에도 이런책을 만히 만드려 내여노호른다. 그리고 차츰차츰 너의들도 울흔길로 눈이떠는사이에 우리들의 힘도 한정업시 커질 것이다.²⁰⁾

동요집을 엮은 시인들이 계급주의 아동 매체 운동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드러낸 글이다. 비록 카프의 논장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불별』은 카프의 아동기관지임에 틀림없으며, 장차 자라날 가난한 “어린 누의동생”들을 계급주의의 영향 밑으로 유도하기 위한 아지프로적 성격이 강한 대중적인 아동지라 할 수 있겠다.

『불별』에 노랫말을 쓴 시인으로는 김병호(5편), 양우정(6편), 이구월(7편), 이주홍(6편), 박세영(5편), 손풍산(5편), 신고송(5편), 엄홍섭(4편) 들이며, 권환과

18) 박태일, 『이주홍론-교육자로서 걸었던 길』, 『소설시대』 제6호, 교수작가회의, 2003.10.

19) 윤기정, 『序文』(二), 앞의 책, 3쪽.

20) 이책을 꾸며낸 여들사람, 『동생들아! 누이들아!』, 『불별』, 6쪽.

윤기정이 각각 서문을 썼다. 삽화로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주홍(2편), 이갑기(3편), 강호(2편), 정하보(1편)이며, 이일권(3편), 이구월(3편), 이주홍(1편), 맹오영(1편)이 노랫말에다 곡을 붙였다. 목차를 보면 ‘가나다順’으로 노랫말을 수록하고 있는데, 아래 표에서 총체예술의 양상을 띠고 있는 『불별』의 참여문인을 제시하였다. 노랫말과 그림, 곡보를 분석하면서 『불별』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 성향과 교분관계를 살펴보자.

연번	동요 지은이	노랫말	곡보	그림
1	彈 金炳昊	1. 가을바람		李周洪
		2. 退學	李一權	
		3. 모숨기		
		4. 바다의아버지		
		5. 더운날		
2	雨庭 梁昌俊	1. 따로있다		李甲基
		2. 망아지	李錫奉	
		3. 대목장압날밤		
		4. 비밀상자		
		5. 씨름		
		6. 새총		
3	久月 李錫鳳	1. 게떼		李甲基
		2. 새쫓는노래	李久月	
		3. 소작료		
		4. 어디보자		
		5. 조심하세요		
		6. 중놈		
		7. 자동차소리		
4	向破 李周洪	1. 벌꿀		李甲基
		2. 편싸흠노리	李向破	
		3. 모기		
		4. 장아치아저씨		
		5. 방귀		
		6. 박쥐 · 고양이		

연번	동요 지은이	노랫말	곡보	그림
5	血海 朴世永	1. 길		姜 湖
		2. 대장간	孟午永	
		3. 손님의말		
		4. 단풍		
		5. 할아버지현時計		
6	楓山 孫在奉	1. 낮		李周洪
		2. 거머리	李一權	
		3. 물총		
		4. 불칼		
		5. 물맬이		
7	孤松 申末贊	1. 우는꿀보기실허		姜 湖
		2. 미덕과장승	李錫奉	
		3. 껌질먹는신세		
		4. 기다림		
		5. 도야지		
8	響 嚴興燮	1. 어머니		鄭河普
		2. 印刷機械	李一權	
		3. 夜學노래		
		4. 祭祀		

Ⅲ. 『불별』의 매체적 성격과 실천 방향

1. 노랫말의 계급성과 투쟁성

1930년대 들어 계급주의 문단은 카프 동경지부의 문사들과 『新少年』과 『별나라』들의 연속 간행물과 신문 매체에 시를 투고한 매체 경험에 기댄 신진 시인들의 약진으로 단연 활기를 띠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적 연대와 학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불별』의 발간은 서로 다른 분과에서 활동하던 경남·부산

지역 문학인들이 전면에 나서 활동하기 시작했음을 널리 알리는 실천운동의 성격이 다분하다. 곡보를 붙이지 않은 시들이 모두 동요²¹⁾의 노랫말로 지어졌으며, 계급의식의 성숙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별』이 놓인 매체 투쟁의 자리를 짐작할 수 있다.

부자영감 눈에서 놀고먹는 거머리
거머리 배를 찢너라

모심으는 아버지 피를빠는 거머리
거머리 배를 찢너라
-손풍산, 『거머리』

계급주의 동요의 전범을 보여주는 시다. “모심으는 아버지 피를빠는 거머리”가 상징하는 바는 바로 “부자영감”으로 대표되는 부르조아 계층이다. 지주(마름)/소작인 대립적인 관계를 통해 소작쟁의가 거듭되던 1930년대 초반의 농촌 현실의 문제와 무산계급의 고통과 분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곡보에서 “찢너라”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되어 있어 투쟁성과 공격성을 강조하고 있다.

손풍산은 김병호, 엄홍섭, 이일권과 함께 경남공립사범학교²²⁾ 출신이다. 수업

21) 근대 한국에서 동요라는 말을 처음으로 제목에 붙인 이는 현직 교사였던 엄필진이다(『조선동요집』, 장문사, 1924). 노랫말을 번역해서 활자로만 독자에게 제공했을 때 노랫말은 ‘눈으로 보기 위한 시’, 즉 ‘동시’가 되고 만다. 사나다 히로코, 『노래가 ‘시’가 될 때까지-동시의 기원에 얽힌 여러 문제들』, 『문학과 사회』 제43호(문학과지성사, 1998), 883~884쪽. 박경수는 동시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지만, 『불별』 주록시는 곡을 붙여서 노래로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한 ‘동요’의 노랫말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썼다. 이 점은 권환의 『序文』(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불별』은 우리들의노래짓는 아저씨들이 우리들의 부르는노래만 지어모아서 우리에게 보낸는책이다. 이것은 우리조선에서는 가장 처음되는 우리들의 노래책이다.”(2쪽).

22) 근대학교 제도로서 교원양성을 위한 경상남도 공립 사범학교가 설립된 해는 1923년이다. 1920년 경상남도 임시 교원 강습회와 1921년 경상남도 임시 교원 양성소의 개설과정을 거쳐 탄생한 학교이다. 1923년 3월 31일 이른바 조선총독부 고시 제125호로 경상남도 공립 사범학교 설치 인가되어 특과와 강습과가 같은 해 4월 24일 문을 열었다. 1940년 관립 진주사범학교를 거쳐 오늘날 진주

연한의 차이가 있어 김병호와 엄홍섭과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김병호²³⁾와 엄홍섭이 교우회지에 시를 발표하며 문학적 교분을 쌓고 있었던 반면에²⁴⁾, 이즈음 손풍산은 아직 지역에서 문학활동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²⁵⁾ 이들이 함께 만나게 되는 매체는 1929년 무렵의 『별나라』이다. 오히려 수업기간 3년 과정을 거친 특과 3회 졸업생(1928년 3월)인 이일권이 엄홍섭, 손풍산과 시기를 달리하며 교류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⁶⁾ 『불벌』의 인적 구성은 이러한 학연 관계에 기댄 바 크다 하겠다.

교육대학교의 전신이다. 진주교육대학교발전사 편집위원회, 『晉州教育大學校發展史』(진주교육대학교·진주교육대학교 동창회, 1994), 109~110쪽.

- 23) 김병호의 문학활동에 대해서는 박경수, 『잊혀진 시인, 김병호(金炳昊)의 시 세계』, 『한국시학연구』~제9호(한국시학회, 2003.11), 59~107쪽과 『김병호의 동시와 동시비평 연구』, 『국제어문』~제29집(국제어문학회, 2003.12), 325~360쪽을 참고할 것. 또한 이미 문덕수의 『世界文藝大辭典』(성문각, 1975년)에서 되풀이되며 김병호의 첫 시집이라 알려진 『황야에 규환』(평화당인쇄소, 1949)에 대한 김중은 이상옥이 『植民地 百姓의 憂愁와 憂鬱한 浪漫-鷄林 金炳昊詩 再照明』, 『慶南文學研究』~창간호(경남문학회, 2002), 71~78쪽에서 앞서 밝힌 바 있다.
- 24) 경남공립사범학교의 1925년 교우회지인 『飛鳳之緣』~1호에 김병호가 일문으로 된 시를, 엄홍섭이 『가을에 떠러진 나무잎 하나』라는 시를 신고 있다. 박태일, 『경남지역 계급주의 시문학 연구』, 『어문학』~80집, 한국어문학회, 2003, 295쪽의 각주 7번 참고.
- 25) 박경수는 김병호가 “엄홍섭, 손풍산과는 2~3년 선후배 관계로 교류하면서 문학의 길을 같이 걸어갔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박경수, 『잊혀진 시인, 김병호(金炳昊)의 시와 시세계』(새미, 2004), 200쪽. 손풍산은 1907년 3월 15일 경남 함천군 초계면 초계리에서 태어났다. 손풍산에 대해서는 정상희가 세세하게 살폈다. 정상희 『풍산 손중행의 길』, 『지역문학연구』~제7호(경남지역문학회, 2001), 51~81쪽.
- 26) 경남공립사범학교는 1920년 3월 수업연한 6개월 과정의 ‘慶尙南道 臨時敎員 講習會’를 열어 같은 해 9월 17명의 졸업생을 내었다. 그러다가 1921년 3월 수업연한 1년의 ‘臨時敎員養成所’를 열어 2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1923.3), 이후 1년 과정의 ‘講習科’와 2년 과정의 ‘特科’를 개설하였다. 김병호는 특과 1회(1925년 3월), 엄홍섭은 특과 2회(1926.3) 졸업생이며, 손풍산은 강습과 4회 졸업생이다(1927.3). 따라서 김병호와 엄홍섭은 1924년 한 해 동안 문학적 교분을 나누었지만, 1926년 3월 입학한 손풍산은 김병호, 엄홍섭과는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그러나 특과의 수업연한이 3년으로 바뀌어 1928년 3월 졸업한 이일권(특과 3회 졸업생)은 입학시기가 1925년이라 엄홍섭, 손풍산과 문학적 친교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진주교육대학교동창회, 『晉州教育大學 同窓會員 名簿』(영남인쇄소, 1967), 27~45쪽.

이러한 학연 못지 않게 출신 지역의 성향을 무시할 수 없다. 손풍산과 이주홍, 이일권이 합천 출신이라 이주홍이 훗날 이들을 이끌었을 것이라 짐작된다.²⁷⁾ 하동 출신으로 주로 진주에서 문학적 훈련을 거친 김병호나 논산군 채운면 양촌리에서 태어나 소학교 5학년 때 바로 위의 형과 진주로 돌아와 숙부 밑에서 학창시절의 보낸 엄홍섭²⁸⁾은 지연·학연의 고리로 연결된 경우라 하겠다. 엄홍섭은 박세영과 『별나라』 동인으로 참여하고, 1931년 『新詩壇』 동인이었던 개성 출신의 민병휘, 함안 출신의 양우정과 함께 『群旗』 자건으로 카프에서 제명당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창원군 진전면 오서리 출신의 권환이 서문을 쓴 일이나 진전면 봉곡리 출신의 계급주의 미술가 강호²⁹⁾가 삽화를 그린 일도 이러한 지역적 연대의식의 발로라 하겠다.

우리는논직히는 새잘훗는아히들
 횃바람군호마쳐 석유통복소리
 량팔을내흔들며 후이후이후이

우리는논직히는 말잘듯는아히들
 아버님핏땀흘려 애태우며지은곡식
 한쫂각도못주겠다 후이후이후이

다라나선오고오고 짹—짹울어도
 놀고먹는 놈들에겐 주지말자하시는데
 갓가히도 못올게다 후이후이후이
 -이구월, 『새쫂는 노래』

27) 이일권은 『불별』을 제외하고는 『新少年』이나 『별나라』들의 그 어떤 매체에도 이름을 발견할 수 없다. 동향 출신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주홍과 어떤 교본 관계가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28) 엄홍섭, 「나의 修業時代-作家的 올챙이때 이야기」(8)-上·中·下, 『동아일보』, 1937.7.30, 7.31, 8.3.

29) 강호의 본적은 경상남도 창원군 진전면 봉곡리 525번지이다. 본디이름은 윤희(潤熙)로, 1907년 8월 7일 강상형(姜尙馨)과 황동림(黃洞林)의 3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호적등본』 참고. 월북한 까닭에 우리 영화계나 미술계에서도 강호의 행적을 소상하게 알 수 없었다. 『韓國映畫監督-1923~1984년 극 영화 연출 작품 총목록』(영화진흥공사, 1985)에서는 사진을 실지 않은 채 이름만 나와 있을 뿐이며 생몰연대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연출작품으로 『지지마라 順伊야(1918)』, 『地下村(1930)』을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다.

『불별』에 수록된 노랫말은 대체로 계급 갈등을 노골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편이다. 앞선 손풍산의 시와는 달리 투쟁의식이 약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용 시 또한 “놀고먹는” “새”와 “아버님핏땀흘려 애태우머지은곡식”을 “직히는” “아히들”의 대립 구도가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새가 지주로 대표되는 부르조아 계층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처럼 경남·부산 지역 아동문학인들이 펼쳐 보였던 동요 운동은 당대의 빈부 문제와 계급적 갈등을 작품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계급주의 동요의 주된 향유층인 아이들의 의식적 각성을 유도하고, 아동문학에 대한 욕구를 지닌 소년문사들의 계급적 투쟁의식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이미 전승동요로 구전되던 새쫓는 노래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계급의식을 덧씌워 향유층에게 쉽게 다가서려는 흔적이 짙은 인용시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 곡보의 대중성과 선동성

카프의 부분별 예술운동에서 음악부는 1930년 4월 조직 개편 예고 신문기사에서나 1934년의 제2차 검거 사건³⁰⁾ 당시의 기구 조직 구성에서 여전히 ‘결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만큼 조직적인 측면에서 음악운동의 지속적인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1930년대 들어 신고송과 양우정의 동요와 동시의 구별 논쟁³¹⁾, 『音樂과詩』(1930.8) 발간 이후 신고송과 홍난파 간의 계급음악논쟁을 통해 음악운동의 실상을 가늠할 수 있다. 실제로 『音樂과詩』에 곡보를 쓴 이주홍, 이구월, 손풍산, 양우정은 당대 음악에 관한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라잃은시기 처음이자 유일한 음악운동잡지인 『音樂과詩』의 이념적 동일성은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것은 이 동인지에 수록된 네 편의 “詩論”³²⁾과 “樂論”³³⁾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계급의식을 선명하게 표출하고 있는

30) 『동아일보』 1935.10.28.

31) 양우정, 『不的確한 立論의 危險性-童謠作家에게 주는 말』, 『중외일보』 1930.2.5~2.6.

32) 임홍섭, 『노래란 것』, 『音樂과詩』 9월창간호(음악과시사, 1930.8.15), 6~7쪽.
양창준, 『民謠小考』, 위의 책, 8~9쪽.

33) 신고송, 『音樂과 大衆』, 위의 책, 21~23쪽.

노랫말에다 5음계에 대한 관심은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音樂과詩』가 지닌 음악운동의 지향점과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인용한 동요의 노랫말과 곡보를 지은 이주홍이 밝혔듯이 “그들에게 아조 쉬운 노래에다가 가장 그들의音樂的 感覺을 날카롭게 썰너줄만한 曲”(24쪽)을 지음으로써 노래운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는 틀리지 않다. 가장 의식하기 쉽고 부르는 쉬운 음악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뚜렷하고 환—한 線과

리듬과 템포와 色彩”, 프롤레타리아의 “音樂的 傳統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未組職해잇는 그들의 가진 노래를 살”(24쪽)려야 한다고 보았다. 부르조아 음악의 “싸이올인”과는 다른 “통수”나 “草笛”, “하모니카”(25쪽)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눈에 띈다.

엄홍섭은 기존의 유한계급이 상정한 ‘노래’라는 통념을 비판하면서 노래가 “사람의마음을한것 흥분식하며 굿세계 자극주며 감동식히는것”(6쪽)라고 인식함으로써 노동자, 농민들의 “억울과 저주와 울분과 애탄과 투쟁”을 노래를 통해 들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만큼 노래는 운동성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제인 셈이다. 민요를 “常놈의노래”(9쪽), 즉 무산계급의 노래라 정의한 양우정의 시론 또한 『音樂과詩』가 지닌 이념적 지향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신고송이 당대의 부르조아 음악을 “殿堂과 象牙塔 속의 音樂”(21쪽)이라

旅人草(이주홍), 『音樂運動의 任務와 實際』, 위의 책, 24~25쪽.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소년잡지 매체에서는 곡보를 매월 게재하자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당시 부르조아 진영의 음악계를 대표하던 흥난파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상의 시평과 악평을 통해 볼 때, 네 편의 단평은 이념적 지향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當初誌名을 『푸로레타리아音樂과詩』라고 한 것이었으나 事情으로 푸로레타리아는 빼었다”는 『社告』³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 노래운동의 차원에서 보다 분명하게 계급주의 동요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분명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音樂과詩』가 거듭 동인지를 낼 수 없었던 까닭은 예술의 불세비키화를 주창한 소장파가 조직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1931년 제1차 검거사건으로 위기상황을 맞게 되고, 더욱이 『群旗』~자건으로 카프의 내부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면화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양우정과 엄홍섭이 개성지부 주도의 『군기』~자건 핵심멤버였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안팎의 사정으로 활동이 위축된 『音樂과詩』~동인들이 다시 결집한 자리가 바로 『불별』이다. 여기에서 엄홍섭의 노랫말 『어머니』에 삽화를 그린 월북미술가 정하보가 개성출신이란 점이 눈에 띈다.

『音樂과詩』에 실린 동요를 재수룩한 향파의 『편싸흙노리』를 살펴보자. “무섭게 힘찬게 벗적벗적 불여라”는 지침에서 알 수 있는 바, 무산계급아동의 투쟁성을 고취시키고 있다. 대체로 『불별』에 실린 곡보의 특징은 계급의식이 농후한 노랫말의 의도를 충분히 살리는 방향에서 무산아동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단조롭고도 힘찬 곡조가 우세하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 창가의 흔적보다는 전통 민요의 가락을 수용하고 있는 『退學』(김병호 謠·이일권 曲)과 『대장간』(박세영 謠·맹오영 曲)은 양우정이 제기한 악론(樂論)의 논점에 적절히 부합하는 것이다.

곡을 붙인 사람 가운데 이구월³⁵⁾과 합천의 이일권, 이주홍은 지역적 연대가

34) 『音樂과詩』, 31쪽.

35) “巨濟에는 久月 李錫鳳이 1930年頃부터 童謠를 써 解放後 童謠集까지 낸 적이 있으나 지금은 病魔와 싸우면서 완전히 붓을 꺾고 있다.” 이주홍, 『4장 예술-제1절 문학』, 『慶尙南道誌』(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 1058쪽.; 박태일, 『두류산에서 낙동강에서』(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457쪽.

두드러지는 사람들이나, 맹오영은 출생지뿐만 아니라 성장과정과 활동지역, 카프운동에 관련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3. 그림의 사실성과 선전성



음악운동과는 1930년대 카프의 미술운동은 조직 구성³⁶⁾에서 경남 창원 진전면 출신의 강호를 미술책임자로 이름을 걸어두고 정하선, 이상대, 안석영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있는 것처럼 초기 이론가인 김복진이나 안석주의 미술운동가들의 성과

에 기댄 바가 크다.

인용 그림은 엄홍섭의 『어머니』에 삽화를 그린 월북미술가 정하보의 그림이다. “쭈굴쭈굴”한 “얼골”과 “울퉁불퉁”한 “손가락”, “꼬불꼬불”한 “등어리”의 어머니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노랫말에서 보는 바 어머니가 보여주는 인물상의 본질은 “늡기까지” “고생”하고 “논밭만표”이며, “못먹어서 힘없는 표”이다. 『가을바람』(김병호 謠에·이주홍 書)에서 보이는 부르조아 “영감”의 형상과는 사뭇 대비된다.

일본에서 조선에 드나들던 프로예맹 미술부 중앙집행위원이었던 정하보³⁷⁾는

36) 『조선일보』 1939.4.29.

37) 개성 출신의 정하보는 1908년부터 1941년까지 살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던 그는 어린 나이에 해외에 나가 신문배달을 하면서 고학으로 미술학교를 다녔다. 1930년에 일본에서 돌아와 노동계급에 이바지하는 미술운동에 발 벗고 나서 수원에서 열린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개최하였다. 1931년부터 프롤레타리아문학예술동맹 미술부를 책임지고 활동하다 일제

1930년 3월 29일과 30일 이들 동안 수원에서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³⁸⁾ 이 해 4월 20일 정하보가 이주홍, 이갑기와 함께 카프 산하 미술부의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도 이채롭다.³⁹⁾ 개성지부에서 활동했을 정하보가 이주홍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일은 엄홍섭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대구 출신 문인이

자 화가인 이갑기는 1930년 11월 신고송과 함께 극단 ‘가두극장’을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강호는 창원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맏아들로 태어나 1920년 서울로 왔다가 다음해 일본으로 건너가 미술수업을 한 인물이다. 귀국 후 1927년 프로에맹에 가입해 1928년 김복진이 체포되어 구금당하자 카프 미술부를 이끌어 나갔으며

경찰에 체포되었다. 출옥 후 쇠약해진 몸을 추스르기 위해 고향인 개성으로 내려가 있으면서 생활 때문에 염색장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신념이 약했던 사람들이 전향하고 있을 때 그러한 경향을 냉혹하게 비판하면서 끝내 지조를 지켰다. 1938년에 몸이 회복되어 서울에 갔으나 또다시 병이 도져 30여 살의 짧은 생을 마쳤다. 그는 판화, 만화, 선전화, 유화 등의 여러 가지 미술형식 작품들을 창작하였는 바, 선진적이었고 형상 수준도 높았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유화 『공판』, 『경전차고에서』, 『짜우는 농민』, 『소년피케』, 『성밖의 여인들』, 『초가집』, 『농촌』 등이 있다. 리재현 편저, 『조선력대미술가편람』(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259~260쪽 참고.

38) 최열, 『한국근대미술의 역사』(열화당, 1998), 260쪽.

39) 『부서 변경-부내 확장-프로에맹의 신진용-20일 중앙위원회 결정』, 『중외일보』 1930.4.22.



영화부에서도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 1930년대 중반까지 정하보, 이주홍과 카프미술부에서 뚜렷한 성과를 남긴다. 강호는 권환의 진전면 오서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서 태어나 성장기를 거치면서 권환의 집안이 운영하던 경향제의 전통과 이 지역 특유의 계급주의적 성향의 세례를 받으면서 성장한 것으로 여겨진다.⁴⁰⁾

강호의 그림에서 엿볼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주의 기법이다. “숨이막히”는 집을 나와 “큰길로 뛰어나가니” 부프조아가 탄 자동차 먼지에 “천사람”의 무산계급이 겪는 고통스런 현실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이주홍의 『낮』(손풍산

40) 강호는 경상남도 창원군 진전면 봉곡리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맏아들로 출생하였다. 아홉 살 때부터 마을에서 10리나 떨어져 있는 사립학교에서 공부하였고, 1920년에는 서울의 사립중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학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한 학기를 넘기지 못한 채 쫓겨나고 말았다. 1927년에 프롤레타리아문학예술동맹에 가맹하여 김복진의 뒤를 이어 미술부를 책임지고 일했으며, 영화부에도 관여하였다. 이 시기 그는 진보적인 미술창작활동을 지도하여 창작된 적극적인 주제의 작품을 가지고 수원에서 미술전람회를 조직하는 사업에 발벗고 나섰다. 출품된 많은 작품들이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을 형상적 비유의 방법을 가지고 그려거나 일제의 착취와 압박을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었다. 한편 동화극인 『자라사신』(1928), 『소병정』(1928)의 무대미술과 영화 『암로』(1928), 『지하촌』(1931)들을 연출하고 주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우리동무』(1932)로 1932년에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3년간 옥살이를 했다. 출옥 후 서울에서 추방되어 부산에서 간판화공으로, 신문사의 광고부원으로 도안을 하면서 연재소설 『황진이』(1935~1936년)의 삽화를 그리기도 했다. 광복 후 서울에서 진보적인 연극동맹조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남조선연극동맹을 조직한 후 서기장으로 활동하였다. 서울에서는 연극 『3.1운동』, 『폭풍우』, 『불길』 등의 무대미술을 담당하기도 했다. 1946년 7월 박헌영의 문화노선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송영, 박세영 등과 함께 발표하고 월북했다. 출판화 분야에서 삽화가 두드러졌는데, 단행본 『해방 전 우리나라 살림집과 생활양식』, 『해방 전 우리나라 옷 양식』의 부록으로 들어간 삽도에서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월북한 후, 무대 미술 창작과 후배육성, 도서집필 사업을 통하여 북한 미술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4년 7월 3일 돌아갔다. 맏아들 강신범은 북한에서 공훈예술가로, 둘째아들 강신일도 미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리재현 편저, 앞의 책, 260~263쪽.

강호는 1929년 진주의 봉곡동 진주강씨 재실 아래채에 영화사무소를 두고 향리 인근지역에서 영화 『암로』를 촬영했다고 한다. 2003년 2월 11일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봉곡리에 살고 있는 사촌동생 강문희(90세)씨와 대담. 강문희씨는 강호가 1950년 3월경에 부인과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을 방문하고는 월북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북한에서의 활동을 감안하면 기억의 착오라 여겨진다.

謠)에서 펼쳐 보인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계급의식과는 달리, 코를 막고 있는 부르조아와의 대비를 통해 계급주의의 이상을 밑자리에 깔고 있다.

『불별』 이외에 강호가 경남지역 문인들과 함께 매체 활동을 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으나, 연극 쪽에서 신고송과 결합하면서도 이주홍과 함께 카프 미술부를 이끌며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펼쳐 나갔다.⁴¹⁾ 이처럼 경남 지역 쪽에서는 계급주의 미술운동의 전통이 의외로 얽은 편인데, 강호와 이주홍이 대구의 이갑기, 이상춘 들을 비롯하여 카프의 여러 부문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지역적 연대를 구축했다. 특히 강호가 주도한 카프미술부는 1930년대 학생극 운동을 직접 지도할 만큼 학생 연극뿐만 아니라 소년극에도 관심이 많았는데,⁴²⁾ 이를 통해 『불별』이 단순한 동인의 성격을 넘어 카프의 산하 조직이 두루 참여한 아동 매체 운동의 산물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IV. 마무리

프롤레타리아 동요집 『불별』은 카프의 아동 기관지이다. 계급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노랫말이나 사실적인 그림, 대중에게 쉽게 다가서는 곡보를 통해 카프의 계급주의 문예이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불별』이 갖는 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망치를 든 프롤레타리아 소년의 전투적인 표지와 더불어 ‘프로레타리아童謠集’이라 명시한 겉표지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계급주의 문예운동의 성격이 짙은 근대 최초의 동요집이다. 이는 전투적인 노랫말뿐만 아니라 그림과 곡보에서도 두루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41) 강호는 이갑기, 이주홍, 정하보 들과 함께 평양 고구 공장 파업을 비롯한 파업 현장에 참가하여 활동하였으며, 출판매체의 표지와 장정, 선전 포스터 작업, 각종 전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강호, 앞의 글, 10~12쪽.

42) 카프 미술부는 1930년대 카프의 직접 지도하에 조직된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중앙불교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여자의학강습소』 등의 학생극 공연에 무대미술을 지도하였으며, 송영과 박세영이 지도하던 『앵봉회』의 소년극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강호, 위의 글, 11쪽.

둘째, 주요 필진의 인적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불별』은 경남 지역 중심의 변방의 아동문학인들이 카프의 계급주의 문예운동에서 아동문학의 역할론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세대 교체를 요구하는 소장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에서 간행된 아동 매체이다. 예술운동의 불세비키화와 카프의 조직 개편과 맞물려 있는 실천 과정에서 간행된 아동지로, 매체 투쟁의 성격을 강하게 담고 있는 셈이다. 출판계에 널리 알려진 신명균을 후견인으로 삼아 박세영, 정하보, 이갑기 등의 전국 단위의 필진을 포함시킨 데서 『불별』의 수평적인 지역 연대의식을 엿볼 수 있다.

셋째, 『불별』~조제 43곡의 노랫말과 8곡의 악보, 8편의 그림을 통해 투쟁성과 공격성을 강조한 데서 계급주의 이념의 뚜렷한 지향을 살필 수 있다. 노랫말은 당대의 빈부 문제와 계급적 갈등을 작품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계급 동요의 주된 향유층인 아이들의 의식적 각성을 유도하고, 아동문학에 대한 욕구를 지닌 소년문사들의 계급적 투쟁의식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문학이나 음악, 미술 운동이 놓인 ‘운동’으로서의 문예운동을 적극적으로 표방한 매체라 할 만하다. 그만큼 『불별』은 카프 소장파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조하는 입장에서 쇠퇴의 기로에 선 계급주의 문예운동의 역량을 다시 결집하여 대중성을 선취하려는 의도의 산물이라 하겠다.

넷째, 『불별』은 지역 동호인지의 성격을 넘어 카프의 해체 빌미를 제공했던 카프 2세대 맹원들의 위상을 드러내고, 특히 경남지역 아동문학인들이 카프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된 매체이다. 1920년대 중반 이후로 『新少年』과 『별나라』, 『音樂과詩』를 통해 서서히 문학적 입지를 굳혀왔던 경남지역 문학인들이 자기 자리를 획득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근대 계급주의 문학사에서 경남 지역 아동문학이 지닌 역할과 위상을 잘 드러내는 매체임에 틀림없다.

주제어 : 『불별』, 프롤레타리아 동요, 계급주의 아동문학, 카프, 매체, 매체 투쟁, 지역문학, 경남·부산 지역문학

참고문헌

1. 일차 문헌

- 『群旗』~7월호, 군기사, 1931.
『農民小說集』, 별나라社, 1933.10.28.
『音樂과詩』~장간호, 음악과시사, 1930.
『카프詩人集』, 집단사, 1931.11.
푸로레타리아童謠集 『불별』, 중앙인서관, 1931.3.10.
『별나라』, 『新少年』, 『아이생활』, 『중외일보』~외

2. 이차 문헌

- 『左翼事件實錄』~2권, 대검찰청 수사국, 1973.
『韓國映畫減毒-1923년~1984년 극영화 연출작품 총목록』, 영화진흥공사, 1985.
강 현, 『한국근대음악운동의 전개과정-식민지시대에서 해방공간까지』, 『노래』~3집, 노래동인 엮음, 이론과실천, 1988.
강 호, 『카프 미술부의 조직과 활동』, 『조선미술』~5호, 조선미술사, 1957.
강희근, 『『新詩壇』~연구』, 『우리 詩文學 研究』, 예지가, 1985.
강희근, 『경남문학의 흐름』, 보고서, 2001.
권영민 엮음,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권영민, 『극단 '신건설' 사건으로 촉발된 카프 제2차 검거 사건의 전말, 공판기록 최초 공개』, 『문학사상』~308호(1998.6).
권영민, 『한국 계급문학 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
김지은, 『이주홍 시 연구』, 『지역문학연구』~제7호, 경남지역문학회, 2001.10.
류종렬 편저, 『이주홍의 일제강점기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2004.
류종렬, 『이주홍과 근대문학』,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리재현 편저, 『조선력대미술가편람』,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문덕수 엮음, 『세계문예대사전』, 성문각, 1973.

- 박경수, 『계급주의 동시 이해의 밑거름』, 『지역문학연구』~제8호, 경남·부산지
역문학회, 2003.9.
- 박경수, 『김병호의 동시와 동시비평 연구』, 『국제어문』~29집, 국제어문학회,
2003.
- 박경수,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동시 연구』, 『한국문학논총』~35집, 한국문학회,
2003.
- 박경수,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시 연구』, 『우리말글』~29집, 우리말글학회,
2003.
- 박경수, 『잊혀진 시인, 김병호(金炳昊)의 시 세계』, 『한국시학연구』~제9호, 한
국시학회, 2003.11.
- 박경수, 『잊혀진 시인, 김병호의 시와 시세계』, 새미, 2004.
- 박영택, 『1930年代 前後의 프롤레타리아 美術運動 및 解放直後 左翼美術運動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미술학과 미술사전공 석사학위논문, 1998.12.
- 박태일 엮음, 『두류산에서 낙동강에서』,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 박태일, 『경남지역 계급주의 시문학 연구』, 『어문학』~80집, 한국어문학회,
2003.6.
- 박태일, 『이주홍의 초기 아동문학과 <신소년>』, 『현대문학이론연구』~18집, 현
대문학이론학회, 2002.
- 박태일, 『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1, 청동거울, 2004.
- 사나다 히로코, 『‘노래’가 ‘시’가 될 때까지-동시의 기원에 얽힌 여러 문제들』,
『문학과 사회』~제43호, 문학과지성사, 1998.
- 서범석 편저, 『우정(雨庭) 양우정(梁又正)의 시문학』, 보고서, 1999.
- 신고송, 『동심의 계급성』, 『중외일보』~1930.3.7~9.
- 신고송, 『아동문학부흥론』, 『조선중앙일보』~1931.12.20~23.
- 이명재 엮음, 『북한문학사전』, 국학자료원, 1995
- 이상옥, 『植民地 百姓의 憂愁와 憂鬱한 浪漫·鷄林 金炳昊詩 再照明』, 『慶南文
學研究』~창간호, 경남문학관, 2002.
- 이유선, 『韓國洋樂百年史』, 음악춘추사, 1985.
- 이장렬, 『권환 문학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12.

- 이주홍, 『4장 예술-제1절 문학』, 『慶尙南道誌』,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
- 임규찬, 『일본 프로문학과 한국문학』, 연구사, 1987.
- 정상희, 『풍산 손증행의 길』, 『지역문학연구』~제7호, 경남지역문학회, 2001.10.
- 정영진, 『바람이여 전하라』, 푸른사상사, 2002.
- 진주교육대학교발전사 편집위원회, 『晉州教育大學校發展史』, 진주교육대학교 · 진주교육대학교 동창회, 1994.
- 진주교육대학동창회, 『晉州教育大學 同窓會員 名簿』, 영남인쇄소, 1967.
- 천영주, 『일제 강점기의 음악교과서 연구-1931~1945년 관·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음악과 민족』~제13호, 민족음악학회, 1997.
- 최 열, 『민족미술의 전통과 양식 1900~1950』, 『미술운동』~7집, 공동체, 1988.
- 최 열, 『한국 만화의 역사』, 열화당, 1995.
- 최 열, 『한국근대미술 비평사』, 열화당, 2001.
- 최 열,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1998.
- 최해균, 『풍산 손증행의 시적 배경 연구』, 『부산문학』~제5집, 1973.
- M.린스트럼 지음·김정 옮김, 『아동미술의 세계』, 열화당, 1980.
- 아우구스트 W. 암브로스 지음·편집부 옮김, 『音樂과 詩의 限界』, 삼호출판사, 1990.
- 장오브리 외 지음·편집부 옮김, 『音樂과 文學』, 삼호출판사, 1990.

<Abstract>

The Media Struggle of KAPF and the Proletarian Nursery Rhyme, *Bul-Byeol*

Lee, Soon-Wook

The proletarian nursery rhyme, *Bul-Byeol*, is a children's medium of the classism. This work is the medium which definitely shows the literary ideology of KAPF by means of the words, or pictures, and musical notes through which we can easily recognize the classism ideology. The literary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Bul-Byeol*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 as we can see the cover on which a proletarian boy holds a hammer and the outer cover on which 'Proletarian Nursery Rhyme'(푸로레타리아童謠集) is definitely revealed, this work is the nursery rhyme of the first modern classism. We can thoroughly confirm this characteristic from the combative words, and pictures, or musical notes.

Second, *Bul-Byeol* was the published medium in which the nursery writers in Kyeongnam region embossed the role of the nursery literature in the literary movement and positively supported the demand of the younger members who claimed the shift in generations as well. We can seize this characteristic through the inclination and human relationship of the main writing staffs, such as Kim, Byeong-Ho, Yang, Woo-Jeong, Lee, Seok-Bong, Lee, Ju-Hong, Sohn, Pung-San, Shin, Ko-Song, Eom, Heung-Seop. This work strongly contains the characteristic of the media struggle as the nursery medium of the classism in which the Bolshevism literary movement and structure reorganization of KAPF are mutually engaged. We can survey the parallel regional solidarity consciousness in that

Bul-Byeol included the national-wide writing staffs, such as Park, Se-Yeong, Jeong, Ha-Bo, Lee, Kap-Ki under the guardianship of Shin, Myeong-Kyun who was well known to the publication world.

Third, we can find the apparent orientation of the classism ideology in *Bul-Byeol* by means of forty-three words, eight musical notes and eight pictures which focus on the struggling and combative consciousness.

Therefore, this work can be the medium which positively advocates the literary movement as 'movement' of the contemporary literature, or music, art movement. Accordingly, *Bul-Byeol* is the intentional work which actively supports the logic of the younger members as the Bolshevism movement and preoccupies the popularity by re-collecting the literary movement of the classism which was in the forked road of decline.

Forth, *Bul-Byeol* reveals the aspect of the second KAPF members who provided the curse of KAPF dispersion beyond the characteristic of regional journal of interested persons, and especially the nursery literary writers in Kyeongnam appear all over the surface of KAPF through this medium. We can infer the media struggle of *Bul-Byeol* in that the literary writers in Kyeongnam, who slowly strengthened the literary location by means of *New Boy*(Shinsonyeon), *Star Country*(Byeolnara) and *Music and Poetry*(Eumak and Shi) since the middle period of 1920s, obtained their places in this work.

Key Words : *Bul-Byeol*, the Proletarian Nursery Rhyme, Juvenile Literature of the Classism, KAPF, Media, Media Struggle, Regional Literature, Kyungnam-Busan Regional Literature